



## 이번주 은혜의 말씀

본문: 창세기 35장 1-8절

날짜: 3월 22일, 2026년

설교자: 정동석 목사님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모든 피조물 중의 대표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거처인 '성전'을 삼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관통하는 핵심 내용입니다.

구약의 출애굽 목적도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함이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성막(장막)을 치고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신약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탄생한 교회의 완성은 결국 '새 예루살렘'이라는 완성된 성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형상과 모양이 없으시지만, 자신의 지혜와 권능, 평강과 뜻을 나타내기 위해 사람이라는 그릇, 즉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성전이 필요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 하나님 앞에 구하는 소원이 만일 타락한 육신의 소원을 들어달라는 것이라면, 그것은 참으로 허무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적 욕심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독생자 예수를 죽이시고 부활시키셔서 예비해 놓으신 그 '온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영이 구원을 얻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영의 구원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영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세우기 위한 시작입니다. 마치 벽돌을 만드는 이 유가 집을 짓기 위함인 것과 같습니다. 벽돌이 만들어졌는데 집을 짓는 데 쓰이지 않는다면 그 돌은 아무 쓸모가 없어 버려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 얻은 자들이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성전'으로 건축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성전이 되는 데 있어 가장 먼저 제거해야 할 우상은 바로 선악과를 따먹고 사탄의 체현이 되어버린 '나 자신', 즉 '자아'가 가장 큰 우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본래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존재여야 하는데,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자존자'가 되어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합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영은 구원을 얻었을지 몰라도 '혼'이 구원을 얻지 못한 상태가 됩니다. 내가 살아있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 진정한 '지체'가 될 수 없습니다. 내 위신, 내 체면, 내 자존심이 살아있으면 다른 형제의 간증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공급을 나누지 못합니다. 내가 죽어야만 세포와 세포가 연결되듯 몸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굳이 죽으셔야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그 '가짜 주인'인 나를 죽이기 위해서입니다.

야곱은 평생 자기 지혜로 삼촌과 형과 아버지를 속이며 물질을 모으고 행복을 쫓았습니다. 그러나 세겜 땅에서 딸 디나가 비참한 일을 당하고 온 가족이 몰살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에야 비로소 자기 지혜의 한계를 깨닫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일어나 베엘로 올라가라"고 명하십니다. 베엘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야곱은 이제 자기 행복이 아닌 하나

님의 집을 위한 존재임을 깨닫고 철저한 준비를 합니다.

첫째, "이방 신앙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체하여 내가 가장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겼던 것들, 내 야망과 탐심을 버려야 합니다.

둘째, "자신을 정결케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믿고,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셋째, "의복을 바꾸라"고 했습니다. 옷은 인격과 생활 방식을 대표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던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새 생활 방식으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또한 귀고리를 땅에 묻으라는 것은 자신을 아름답게 보이려던 옛 성품과 습관을 다 버리라는 뜻입니다.

야곱이 모든 우상을 상수리나무 아래 묻고 베엘을 향해 발행했을 때, 하나님이 주변 고을 사람들이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지 못하도록 크게 두려워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정상적인 위치를 잡고 베엘로 올라갈 때, 사탄의 세력은 결코 우리를 틈타지 못합니다. 환경은 여전히 두려운 상황일지라도,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바로 서면 마음에 평강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은 거룩한 성전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한 몸 되어 그분을 나타내는 존재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내 자아를 십자가에 넘기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의 영 혼 몸 전체가 하나님을 모시는 온전한 베엘이 되어, 우리를 통해 주님이 영광 나타내시기를 원합니다.

해당 설교는 오른쪽의 QR코드를 스캔하셔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 Sermon of the Week:

## From Shechem to Bethel: The Journey of Restoration



**Passage:** Genesis 35:1-8 (ESV)

**Date:** March 22, 2026

**Pastor:** Dong Suk Chung

God created all things in the universe, and the pinnacle of all creation is humanity, made in His image and likeness. The purpose of that creation is for people to become God's dwelling place: His "temple". This is the central theme that runs from Genesis to Revelation.

The purpose of the Exodus in the Old Testament was also to build God's temple. The Israelites were able to survive 40 years in the wilderness only because God pitched His tent among them and dwelt with them. When the New Testament refers to "the Word becoming flesh and dwelt among us," it means that He "pitched His tabernacle" in our midst. The church, born through the Lord's death and resurrection, ultimately reaches its completion as the "New Jerusalem", the perfected temple. Though God is Spirit and has no form or appearance, He needs a vessel—a human being made in His image, a living temple—through which to express His wisdom, power, peace, and will.

If the prayers you bring before God are merely requests to satisfy the desires of your fallen flesh, those requests are truly made in vain. God is not here to fulfill our physical cravings. The reason He called us is to give us the "complete salvation" prepared through the death and resurrection of His only Son, Jesus.

The moment we believe in Jesus, our spirit is saved. But God's purpose does not end with the salvation of the spirit. That salvation is the starting

point for building the Church as the body of Christ; just as bricks are made in order to build a house. A brick that is never used to build anything is useless and discarded. God's purpose is for those who are saved to be joined to the body of Christ and built up as His temple.

The greatest idol we must remove in order to become a true temple is our own "self"; the ego that ate from the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and became an embodiment of Satan. Man, as the image of God, was originally meant to be entirely dependent on God, but fallen man has made itself self-sufficient, becoming its own independent master.

As long as "I" am alive, even if the spirit is saved, the soul remains unsaved. A person whose self is still alive cannot become a true member of the body within the Church. As long as my pride, reputation, and ego are alive, I cannot receive the testimony of others or share in the supply of life that the Lord provides. Only when "I" die can we be connected like cells forming a body. Why did Jesus have to die? Precisely to put to death that "false master"—the self—that had seated itself in God's place.

Jacob spent his whole life using his wit to deceive his uncle, his brother, and his father, accumulating wealth and chasing after happiness. However, it was only when his daughter Dinah suffered a tragedy in Shechem and his family faced life-threatening danger that he realized the limits of his own wisdom. At that moment God commanded him: "Arise and go up to Bethel." Bethel means "the house of God." Jacob now understood that he existed not for his own

happiness but for God's house, and he made thorough preparations.

First, he said, "Put away the foreign gods." We must cast aside the things we have loved and treasured above God, such as our ambitions and greed, which have replaced Him.

Second, "Purify yourselves". Believing that we are God's temple, we must cleanse ourselves from every defilement of the body and spirit.

Third, "Change your garments". Clothing represents character and the way of life. This means casting off the old habits of living according to the desires of the flesh and putting on Christ as a new way of living. Burying the earrings in the ground signifies discarding the old nature and habits of trying to make oneself look attractive to the world.

When Jacob buried all the foreign idols under the oak tree and set out for Bethel, God caused a great fear to fall on the surrounding towns so that no one pursued them. When we take our rightful position and go up to Bethel toward God's purpose, the forces of Satan cannot find an opening to attack us. Even if the circumstances are still frightening, peace comes to the heart when our relationship with the Lord is set right.

God's purpose in calling you is for you to become a holy temple: to be united with God and to manifest Him. Every day, surrender your old self to the cross. May your entire spirit, soul, and body become a complete Bethel that houses God, so that the Lord may reveal His glory through you.

### 나성교회 연락처

- +1 562-690-7979
- <https://nasungchurch.net>
- [information@nasungchurch.net](mailto:information@nasungchurch.net)
- 1620 Fullerton Rd  
La Habra Heights  
CA 90631
- 도서관 운영 시간  
주일 오전 9:30 - 오후 1:30

### 나성교회 예배안내

모임	시간	장소
주일예배 1부	오전 8시	대예배실
주일예배 2부	오전 11시	대예배실
영어부 예배 (RHBC)	오전 11시10분	EM 예배실
수요일예배	오후 7시 30분	대예배실
유치, 유년부 (Seeds)	오전 11시	Seeds Room
중, 고등부 (Abide)	오전 11시 10분	EM 예배실

### 삼성교회 연락처

- +82 02-2293-4421
- <http://samsungch.or.kr>
-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400 (우) 04701
- 지하철
  - 2호선 상왕십리역(1번 출구)
  - 2호선 신당역(2번 출구)
- 버스
  - 147, 202, 241, 302, 463, N62, N73, 1017, 2012, 2013, 2014, 2015, 6211, 성동01

### 삼성교회 예배안내

모임	시간	장소
주일예배 1부	오전 9시	대예배실 (지하 1,2층)
주일예배 2부	오전 11시	대예배실
수요일예배	오후 7시 30분	대예배실
유치부	오전 11시	4층 예배실
유년 주일학교	오전 11시	2층 예배실
청소년부	오전 10시 30분	3층 예배실
청년부	오후 2시 30분	3층 예배실